

HOT NEWS - 2010 교과부 주요 업무 보고

교원능력평가 전면 확대...국립대학 교수 성과연봉제 도입

대학입학사정관제 통해 창의적 인성 갖춘 인재 선발 국립대학 교수 총액인건비제·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올해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초·중등 교사까지 확대되고, 대학 입학사정관제가 본격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병만, 이하 교과부)는 지난 22일 한국연구재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201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어서 '대학의 글로벌화 및 R&D 투자 효율성 제고 방안'과 '선진일류국가 달성을 위한 문화회복 정책 제고'라는 주제로 인민합동 토론회를 진행했다.

교과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과학기술 선진화로 세계일류국가 도약'이라는 정책 목표 하에 '창의와 배려가 조화된 교육,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교육과학기술'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주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모든 학교로 전면 시행한다.

현재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법률의 개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2010년 3월부터는 모든 초·중등학교에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창의적이고 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한다.

학생의 잠재력, 소질,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고, 이를 위해 충분한 입학사정관 확보 및 전문성 강화, 다단계 전형 도입 등으로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학교 내 교육활동을 성실히 한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기대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EBS를 통해 수능 준비와 대입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2009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에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가 도입된다.

그 동안 위성·케이블 방송에 제한되었던 대입정보 제공을 지상파

방송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명강사·우수교재를 활용해 EBS강의 질을 높이고 수능시험과의 연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선진형 대학교수 인사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대학교수 인사 운영에 경쟁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대학에 교수 총액인건비제 및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교과부는 원자력을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건설 국제입찰에서 우리나라가 최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09.12)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에 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UAE와 협약을 맺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교유의 수출용 중소형원자로(SMART)를 세계 최초로 2011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카자흐스탄 등 관심 국가들과 건설 타당성 공동 조사 등 수출협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도 본격 추진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계 최고 무늬들이 오고 싶어 하는 교육·연구·산업 클러스터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기초과학연구원 설립과 중이온 가속기 설계를 착수하고, 앵커기업 유치 등 지식산업단지 조성과 국내외 우수 대학 유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국 대표 국제장학프로그램 GKS(Global Korea Scholarship)도 육성한다.

정부초청 장학생 등 내·외국인 대상의 기존 장학 프로그램을 GKS로 통합 브랜드화하고 예산 및 수혜 인원도 대폭 확대하여 한국의 대표 장학 프로그램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이력관리 실시

2009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에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가 도입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과학관 체험,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등 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이 대폭 강화되고, 체험활동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와 연계해 입학사정관 활용자료 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현장의 체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개발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계획한다.

대입전형에서는 초·중등교육에 이루어진 다양한 교육활동을 바탕으로 능력과 창의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도록 대학입학사정관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입학사정관제 지원 대학 확대 등을 통해 전형 규모를 늘리고,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전형의 공정성 확보 등 내실을 기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도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영역과 과목 조정 등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학생들에 대해서도 사회봉사 참여를 적극 지원하여 나눔과 배려의 실천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멘토링 이력관리제를 구축해 대학생들의 소외계층 자녀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봉사 참여한 학생들에 대해 국가 교육봉사 인증서 등 인센티브 부여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3월, 교원능력개발평가 모든 학교로 전면 확대

교과부는 특성화된 창의적 교육을 실현하는 자율형 사립고를 50개교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도시

(세종시, 경제자유구역, 기업·혁신도시 등) 중심으로 설립·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50개교로 확대하고, 농산어촌 기숙형고교 82개교가 본격 운영되며, 2009년에 지정된 68개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등 지역별·학교별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내년 3월부터 모든 초·중등학교에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관련 법률의 개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교과부는 필요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할 계획이다.

평가결과와 교사 개인별 맞춤형 연수에 활용하게 되며, 특히 우수 교사에게는 학습연구원 등을 통한 전문성 심화 기회를 제공하고, 수업·생활지도 등의 영역별로 전문성 신장이 필요한 교사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집중연수를 지원하게 된다.

올해 처음으로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공시됨에 따라, 모든 학교 학생들의 학력 향상 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수준별 보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수준별 수업, 방과후 프로그램, 멘토링 등을 통한 학생 수준별 맞춤지도도 강화하는 등 연



◆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오전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업무계획을 들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사진 오른쪽 끝).

중 촘촘한 학습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특성고·일반계고로 전환

2009년 지정된 마이스터고(21개교)가 3월에 개교하여, 고교 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 집중 육성된다.

지난 11월 있었던 2010학년도 입학전형에서도 평균 3.55:1의 높은 경쟁률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바 있다.

앞으로 업종별 협회와 마이스터고간 협약체결 등 전국 단위 취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우선적으로 우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등학교 직업교육체제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특목고, 특성화고, 일반전문계고, 종합고 등으로 복잡하게 운영

되고 있는 전체 전문계고를 취업에 중점을 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또는 일반계고로 전환을 추진한다.

일정 기간동안 교원 초과직원 인정, 체제 전환경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시·도 교육청 주도로 자율적인 전환을 유도한다.

전문계고의 취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취업 경쟁력이 높은 취업선도화 고졸 10개교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업종별 협회(Sector Councils)와 공동으로 국가직무 능력표준(KSS)에 기반한 교육과정도 개발한다.

아울러, 취업 희망 학생들의 취업 알선 지원하기 위해 구직수요 관련 DB를 구축하여 내년에는 마이스터고에 우선 적용하고, 2011년부터는 전체 전문계고로 확대할 계획이다.

<3면에서 계속>
홍성민 기자 hsi@eduyonhap.com

대학입학사정관제 정착...능력과 창의성 평가 대학생에게도 사회봉사 참여 적극 지원 추진



◆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 2010년도 교육, 과학, 문화분야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 촘촘한 학습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특성고·일반계고로 전환

2009년 지정된 마이스터고(21개교)가 3월에 개교하여, 고교 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 집중 육성된다.

지난 11월 있었던 2010학년도 입학전형에서도 평균 3.55:1의 높은 경쟁률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바 있다.

앞으로 업종별 협회와 마이스터고간 협약체결 등 전국 단위 취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우선적으로 우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등학교 직업교육체제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특목고, 특성화고, 일반전문계고, 종합고 등으로 복잡하게 운영

되고 있는 전체 전문계고를 취업에 중점을 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또는 일반계고로 전환을 추진한다.

일정 기간동안 교원 초과직원 인정, 체제 전환경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시·도 교육청 주도로 자율적인 전환을 유도한다.

전문계고의 취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취업 경쟁력이 높은 취업선도화 고졸 10개교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업종별 협회(Sector Councils)와 공동으로 국가직무 능력표준(KSS)에 기반한 교육과정도 개발한다.

아울러, 취업 희망 학생들의 취업 알선 지원하기 위해 구직수요 관련 DB를 구축하여 내년에는 마이스터고에 우선 적용하고, 2011년부터는 전체 전문계고로 확대할 계획이다.

<3면에서 계속>
홍성민 기자 hsi@eduyonhap.com

교육연합신문 기사제보: news@eduyonhap.com

발행인/편집인 한승균
우405-83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35-1 205호
구독문의/대표번호 (업무국) 032-433-1633 (편집국) 032-433-4633
(광고국) 032-433-0633 FAX 032-433-5633
포천지사 031-542-8353 호남본부 062-654-1633
구독료: 한달 10,000원
2009년 1월 22일 등록번호 인친타0600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교육연합신문 학생 기자에 도전하세요!

교육연합신문은 초, 중, 고교생들에게 영어가게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연합신문은 학생 기자들이 활동하는 학교 주간, 교육분야 모두에 관한 어떤 정보와 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다루는 신문입니다. 신문사의 영어가게는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고, 글쓰기를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사는 교육연합신문에서 다루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학생들 눈에 띄는 다양한 주제에서 활동합니다. 기사는 가능한 한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관련성을 지니 작성하십시오. 모든 기사를 위해 개인적인 교양 기사를 위한 배려가 있습니다. 모든 기사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본지에도 도록 받고 학생이 지면을 넓혀 주는 신문 영어가게 생활에 참여하십시오.

제 1기 학생기자단 모집

- 모집기간: 신청서 제출기간: 2009. 12. 1(월) ~ 2009. 1. 15(화) 정오
- 모집대상 및 대상: 초·중·고교 1, 2학년 / 중등, 대학원 / 교육 관련 전공(영어영문, 교육학, 교육심리, 상담학 등)
- 신청처: 본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35-1 205호 / 포천지사: 포천시 중앙로 104-1 2층 / 호남본부: 호남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104-1 2층
- 문의처: www.eduyonhap.com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35-1 205호 / 문의전화 032-433-1633 / www.EduYonhap.com